

부산체육 톡톡

March 2020 VOL. 01



사람과 사람

첫 민선 체육회장 시대의 개막!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



스포츠 톡

겨울, 더욱 뜨겁고
간절했던 이유

제101회 전국동계체육대회

부산체육계 미래 밝힌 꿈나무
선수들 활약상



교육 톡 ①

스포츠 인권교육

스포츠인권 전문가들이 일선 학교의
운동부를 직접 방문, 인권침해 관련
폭력, 성폭력에 대해 학생선수 및
지도자 또는 학부모와 대화의
시간을 갖는 프로그램

교육 톡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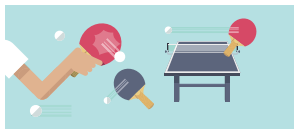
운동선수 진로지원 서비스

은퇴선수가 미래설계를
할 수 있도록 전문 진로지원
서비스를 제공



스포츠 뉴스

01 전국 유일
부산탁구체육관 개관식



02 부산광역시체육회 창립
기념식 개최



03 부산체육고등학교
격려 방문



이달의 이슈



사람과 사람



첫 민선 체육회장 시대의 개막!

현실공약 + 내실경험 + 민심진심 열쇠로~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

지난해 12월 27일, 부산광역시체육회 제26대(통합3대) 초대 민선 체육회장을 뽑는 선거를 치렀다. 장인화 전 부산광역시체육회 수석부회장은 391표 가운데 307표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 체육계 안팎의 풍부한 경험과 내실 있는 경영 마인드 무엇보다 부산체육 발전을 누구보다 열망하며 진심을 다한 결과였다. 막중한 책임감만큼 추동력을 더하겠다는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 흔들림 없는 눈빛, 신중하고 곧은 어조로 그간 품어둔 ‘부산체육’ 얘기를 시작했다.

‘우산’ 같은 존재, 부산 체육인 열망의 대명사

2003년 부산육상연맹 부회장을 시작으로 대한장애인사격연맹 회장, 대한장애인체육회 수석 부회장, 대한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협회장, 대한체육회 이사, 부산광역시체육회 수석 부회장 등 중앙과 지역을 아우른 활동 면면이 화려하다. 장인화 회장은 오래 전부터 체육계 리더로 활약해온 터라 부산 체육인들 사이에선 모르는 이가 없을 만큼 중량감 있는 인사다. 전문, 생활, 장애인 체육 행정을 두루 이끈 데다 부산에서 중견기업을 경영하는 CEO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해온 그에게 이번 도전을 그 의미가 남달랐다.

‘제2의 도시 부산’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리만치 열악한 체육 환경에 빠듯한 예산, 해가 바뀌어도 뭐 하나 나아지지 않는 부산체육의 현실은 그야말로 지리멸렬하게 반복됐다.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이후 새로 구축된 체육시설 하나 없었으니 답답할 노릇. 그런 와중에 치른 선거에서 압도적인 표 차로 첫 민선 체육회장이 된 그에게 이젠 정말 변해야 한다는 부산 체육인들의 간절한 바람, 열망의 시선이 쏠렸다.

선순환 효과 강조, 체육회 예산 증대 위한 조례 제정

이번 선거에서 장 회장은 운영이 아닌 경영의 체육회, 체육회 예산 증대를 위한 조례 제정, 체육 전문인 일자리 확대, 학교체육의 자율성 보장, 생활체육대회 활성화와 중계 시스템 구축, 체온이 느껴지는 체육회 등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특히 체육회 예산 확보나 수익창출 방안은 무척 구체적이라 눈길을 끌었다. 공약은 우선순위를 두기보다는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업무 첫날부터 탁월한 사업가로서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며 쉼 없이 도전, 불확실성에 대비하며 위기를 기회로 삼았던 승부사적 기질은 여지없이 나타났다.

2020년 기준 부산시에서 체육회에 지원하는 예산은 체육회 전체 예산 중 약 78% 정도의 265억 원의 규모, 이는 부산시 전체 예산 중 약 0.2%에 해당하는 예산액이다. 이를 0.5%까지 확대하는 민선 체육회 육성 조례 제정 추진 계획을 밝힌 장 회장, 이게 가능하려면 시와 시의회의 협조와 양보는 필수다.

생활체육의 대중화, 일상화 위한 인프라 확충

“제겐 오랜 체육 단체 경영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잘 짜인 체육계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20년 가까이 체육단체 경영과 중앙 체육계 행정 경험이 부산 체육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선하고도 강력한 영향력’으로 활용되도록 해야죠. 중앙 체육계에 부산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부산의 의지를 관철하는 체육계 리더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는 올림픽 대회나 월드컵대회, 아시안게임 같은 ‘메가 스포츠 이벤트’에 올인하는 시대는 지났어요.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할 때죠.

‘알찬 스포츠 이벤트’를 만들어 스포츠 산업 혹은 관광상품과 연계 지을 생각입니다.”



스포츠 톡



겨울, 더욱 뜨겁고 간절했던 이유

제101회 전국동계체육대회

국내 최대 동계스포츠대회인 제101회 전국동계체육대회가 지난 2월 18일(화)에 시작했다. 나흘간의 열전은 서울과 경기, 강원, 경북에서 펼쳐졌다. 이번 전국동계체육대회는 16개 시도에서 출전한 7종목(정식 5, 시범 2) 3,850명의 선수단(선수 2,645명, 임원 1,205명)이 참가해 기량을 겨뤘다. 부산선수단은 종합순위 5위를 달성하며 대회를 마무리했다.



부산체육계 미래 밝힌 꿈나무 선수들 활약상

부산선수단은 지난 2월 21일 끝난 제101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금 3개, 은 6개, 동메달 12개 등 종합 득점 456.5점을 얻어 종합 5위를 차지했다. 이로써 부산은 2007년 동계체전부터 14년 연속 종합 5위라는 대기록을 작성했다. 이번 대회에서도 스키가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 스키는 알파인의 강영서(한국체대)가 여자일반부 대회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크로스컨트리의 정마리아(부산진여고)가 여자고등부 프리 10km에서 정상에 올랐다. 강영서는 회전과 슈퍼대회전, 복합에서 은메달 3개를 추가했다. 정마리아는 복합에서 은메달, 클래식 5km와 15km 계주에서 각각 동메달을 따내며 이번 대회 금 1개, 은 1개, 동메달 2개를 획득하는 기염을 토했다. 사전경기로 열린 피겨 남자중등부 싱글 D조에서는 박동현(동래중)이 이번 대회 첫 금을 부산선수단에 안겼다.

특히, 이번 대회 알파인에서는 남자초등부 최범근(동성초등)의 활약이 돋보였다. 최범근은 대회전과 슈퍼대회전에서 소중한 은메달 2개를 획득하며 부산의 종합 5위 수성에 힘을 보탰다. 초등 4학년인 최범근은 초등 5·6학년들과 대등한 경기력을 보이며 부산 스키계의 꿈나무로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부산은 컬링 남자 일반부 단체전과 바이애슬론, 쇼트트랙, 아이스하키 등에서 소중한 동메달을 추가하며 종합 5위를 지켜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부산의 명예를 걸고 최선을 다해 준 선수와 지도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여러분들의 선전은 부산체육인들에게 큰 힘이 됐고, 부산체육의 위상을 높일 수 있었다”고 전했다.



| 순위 | 시도 | 총득점 |
|----------|-----------|--------------|
| 1 | 경기 | 1,309.5 |
| 2 | 서울 | 931 |
| 3 | 강원 | 793 |
| 4 | 전북 | 590 |
| 5 | 부산 | 456.5 |
| 6 | 대구 | 416.5 |
| 7 | 인천 | 338 |
| 8 | 충북 | 287 |
| 9 | 경북 | 285 |
| 10 | 전남 | 266 |
| 11 | 광주 | 233 |
| 12 | 충남 | 137.5 |
| 13 | 경남 | 110 |
| 14 | 대전 | 106 |
| 15 | 울산 | 54 |
| 16 | 세종 | 36 |
| 합계 | | 6,349 |

교육 톡 ①



스포츠 인권교육

“찾아가는 스포츠인권교육”은 스포츠인권 전문가들이 일선 학교의 운동부를 직접 방문하여 학생선수들의 학업과 운동수행 중에 나타나는 인권침해 관련 폭력, 성폭력에 대해 학생선수 및 지도자 또는 학부모와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는 프로그램이다.



어떤 내용으로 교육상담을 하는 건가요?

선수

PLAYER



학업과 운동부 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바, 이 과정 중에 나타날 수 있는 인권침해 사례와 예방법(가이드스 제시), 문제 발생 시의 처리 방법(도움 안내),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 관련 정책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인권이 보장되는 건강한 선수 생활을 하기 위한 상담을 하고 있다.

지도자

MANAGER



최근 선수 및 지도자의 인권, 처우 개선과 복지 등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선수들의 교육과 더불어 인권침해(폭력, 성폭력) 사례와 예방법(가이드스 제시), 문제 발생 시의 처리방법과 구체적인 상황별 행동지침과 규제 관련 정책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올바른 지도에 대한 제시를 하고 있다.

학부모

PARENTS



자녀(선수)의 인권이 보장되는 환경에서 마음껏 운동하고, 지금까지 관행으로 야기되었던 선수들의 인권침해 사례와 예방법(가이드스 제시), 문제발생 시 처리방법,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 관련 정책 등 자녀의 구체적인 상황별 행동지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자녀의 인권 향상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누가 그리고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스포츠 인권침해(폭력, 성폭력)를 예방하고자 상담을 필요로 하는 일선 학교의 운동부(학교, 학생선수, 지도자, 학부모)가 신청할 수 있다. 상담실은 신청학교(운동부)를 우선으로 하고 그 외 시·도 교육청 및 시·도체육회의 추천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어떤 분들이 프로그램을 준비, 진행하시나요?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 내에 스포츠인권 전문상담사와 스포츠인권 전문인력풀(외부 스포츠분야 전문강사)이 직접 해당 학교의 운동부에 맞게(종목, 연령 등을 고려) 맞춤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며, 각 시·도 교육청의 협조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재정지원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언제 그리고 어디서 열리나요?

| | |
|-------------|--|
| 언제 | 연중(세부 일정은 신청 후 협의를 통해 확정 예정) |
| 교육신청 | https://sports-in.sports.or.kr 에서 신청 가능하다. (찾아가는 교육신청) |
| 어디서 | 일선 학교 운동부 등 |

스포츠인권 전문인력풀이란?

대한체육회는 스포츠 인권 보호 향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구성된 스포츠인권 전문인력풀을 시·도별, 경기단체로 구성, 본회의 관련 사업(교육, 상담, 신고, 프로그램 개발 등)에 직접 참여·활동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 1 엘리트 선수, 지도자출신자
- 2 체육 관련 학과 교수
- 3 전문 상담 교육자(폭력, 성폭력)
- 4 법률자문인사
- 5 관련 부처인사 등
- 6 회원종목단체, 종목별 전문가



어떻게 도움을 주나요?

스포츠인권상담
선수를 위한
롤 모델 제시

인권 관련 정보
제공 지도자로서
롤 모델 제시

자녀의 인권
관련 상황
향후 정책정보

교육 톡 ②



운동(은퇴)선수 진로지원 서비스

① **진로지원 서비스**

운동선수들의 진로와 경력개발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컨설팅, 교육, 멘토링, 진로지원을 제공하는 종합서비스(상담, 교육·취업지원 연계)

- **지원대상** 운동(은퇴)선수(대한체육회 선수등록시스템에 운동선수로 등록한 자)
- **신청기간** 연중 수시모집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welfare.sports.or.kr)
- **지원내용** 1:1 진로상담 및 취업계획 수립, 유관기관 교육 및 취업 관련 정보 제공, 스포츠 분야 진로교육(자격증 대비반 등), 각 분야 현직자와의 멘토링 프로그램, 개인별 기초역량 교육 지원, 기업분석 및 채용정보 제공 등
- **문의** ☎ 02-419-1114

② **잡(JOB)매칭 서비스**

운동선수에게 취업희망 분야의 채용정보를 자동 매칭해 제공하는 취업 지원 서비스

- **주요내용** 채용정보 종합제공 : 워크넷, 사람인 등 채용정보 통합, 운동선수에게 신청분야의 채용정보를 선별해 온라인(홈페이지, 메일)으로 정보를 제공
- **지원대상** 대한체육회 선수등록시스템에 운동선수로 등록한 자
- **이용방법** 회원가입 후 이용
- **문의** 대한체육회 교육복지부 ☎ 02-2144-8162
- **서비스주소** welfare.sports.or.kr

대한체육회는 2013년부터 운동(은퇴)선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권역별 진로지원센터 개소를 통해 원스톱 진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은퇴선수 진로지원센터가 서울에만 위치해 지방 거주자의 이용에 불편함이 있었으나 센터 개소를 통해 지방에 거주하는 은퇴선수도 편하게 오프라인 상담과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은퇴선수 진로지원센터는 은퇴선수 및 현역 운동선수 모두 이용 가능하다. 은퇴선수는 취업·경력 관련 상담 또는 진로지원 서비스, 잡(JOB) 매칭 서비스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현역 운동선수도 센터 방문 시 진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진로지원 서비스는 오랜 시간 운동에 전념해 온 운동(은퇴)선수들이 새로운 취업 목표를 설정하고 구직 기술을 향상해 제2의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별 특성에 맞춘 1:1 진로·취업 상담, 이력서·자기소개서 컨설팅, 면접 컨설팅, 취업 성공 선배 멘토링, 취업 교육, 창업 교육, 스포츠지도자 자격증 준비과정 등을 제공하고 있다.



③ **은퇴선수 진로지원센터**

은퇴선수에게 진로 및 취업(상담, 교육, 취업알선, 사후관리 등)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취업지원 서비스

- **위치** 서울올림픽파크텔 19층(서울 송파구 방이동)
- **문의** ☎ 02-419-1114 / 전국 대표번호 1544-6679
- **서비스주소** welfare.sports.or.kr
- **권역센터운영** 경상센터(부산), 충청센터(대전), 경기센터(수원), 전라센터(광주)
※ 지방권역센터 운영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④ **찾아가는 운동선수 진로교육**

선수시절부터 듀얼커리어(운동과 학업)와 성공적인 사회 정착을 준비하기 위해 경력개발의 중요성과 준비과정을 소개하는 교육

- **지원대상** 중학교, 고등학교 운동부(대한체육회 선수등록시스템에 운동선수로 등록한 자)
- **신청기간** 연중 수시모집
- **접수방법** 공문접수
- **교육내용** 1강 목표설정의 중요성, 2강 운동선수의 경력전환, 3강 흥미로운 직업정보 탐색, 4강 스포츠 관련 자격정보 찾기, 5강 스포츠 분야 직업의 세계, 6강 나의 꿈, 미래설계
- **강사** 대한체육회 진로교육 전문강사
- **문의** 대한체육회 교육복지부 ☎ 02-2144-8165

⑤ **국가대표 진로상담 프로그램**

전직 또는 진학에 대한 정보와 상담을 희망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진로상담 지원

- **지원대상** 국가대표 운동선수
- **신청기간** 연중 수시모집
- **접수방법** 전화접수
- **주요내용** 취업전문성 강화 취업기술, 이력서 작성, 면접기술 등 **진로설계** 경력개발 계획, 진학 및 교육과정 선택 등 **심리상담** 직업흥미검사, 성격유형검사 등
※ 대상에 따라 시간 및 내용 맞춤 지원
- **문의** 대한체육회 교육복지부 ☎ 02-2144-8164



스포츠 뉴스



SPORTS
NEW

01

전국 유일 부산탁구체육관 개관식

☞ 전문 선수 전용훈련장으로 활용,
개관식에 관계자 150여 명 참석

부산광역시는 지난 2월 11일 영도구 동삼혁신지구 국립해양박물관 맞은편 옛 구민체육공원에 건립된 '부산탁구체육관' 개관식을 열었다. 부산탁구체육관은 탁구 전문 체육관으로는 전국에서 유일한 시설이다. 2018년 12월에 착공해 지난해 12월 준공했으며 연면적 1662㎡, 지상 2층 규모로 공사비만 49억6천만 원이 투입됐다. 1층에는 일반 이용객을 위해 탁구대 10대가 설치됐고 2층에는 탁구선수들의 훈련을 위해 15대의 탁구대와 전용 바닥 매트, 수납형 의자, 벽면 충돌 방지시설 등이 설치됐다. 엘리트 선수들의 전용훈련장으로 활용하는 것은 물론 일반 시민도 탁구를 마음껏 즐길 수 있어 생활 탁구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SPORTS
NEW

02

부산광역시체육회 창립 기념식 개최

☞ 부산 시민의 삶 속에 살아 있는
부산체육이 되도록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지난 2월 27일(목) 부산광역시체육회 관 6층 접견실에서 '부산광역시체육회 창립기념식'을 개최했다. 창립기념일(2월 29일)을 이틀 앞두고 열린 이번 기념식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로 인해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과 부산시체육회 직원들만 참가한 가운데 치러졌다. 이날 기념식은 그동안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부산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더욱 발전하는 부산체육을 만들어가자는 다짐을 하고자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부산체육이 이만큼 성장하기까지 체육 현장에서 한결같이 애써주고 함께해준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으며 앞으로 부산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SPORTS
NEW

03

부산체육고등학교 격려 방문

☞ 우수 체육 인재 양성의 메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지난 2월 7일(금) 체육 인재 양성의 산실인 부산체육고등학교를 방문해 부산체육고등학교 학생과 지도자들을 격려했다. 장인화 회장은 "우수 체육 인재 양성의 메카로 자리 잡은 부산체육고등학교의 김창민 교장 선생님과 감독 및 지도자, 학생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무엇보다 선수들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부산체육고등학교는 전국체육대회에서 전체 득점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며 지난 전국체육대회에서도 세팍타크로팀이 전국체육대회 5연패를 달성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이달의 이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이것이 궁금하다!**



지난 1월 20일 국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하 '코로나-19') 첫 확진환자가 보고되고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많은 이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하지만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을 잘 지킨다면 문제없다. 안전한 일상생활과 스포츠 활동을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코로나19 예방, 기본부터 하나하나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우리 역시 더욱 적극적으로 행동수칙을 시행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을 지키는 것이다. 특히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하게 손을 씻고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않아야 한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반드시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사람이 많은 곳은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사람과는 접촉을 피하는 편이 좋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톡톡 TALK TALK

Q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떤 바이러스인가요?

A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동물 및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바이러스로, 그 중 사람에게 전파 가능한 코로나바이러스는 현재까지 6종이 밝혀졌습니다. 이중 4종은 감기와 같은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고, 나머지 2종은 각각 MERS 코로나 바이러스와 SARS 코로나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한 폐렴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사람에게 전파된다고 알려졌으며,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공개된 염기서열분석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박쥐 유래 SARS 유사 바이러스와 89.1%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Q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은 백신이나 치료제가 있나요?

A 새롭게 바이러스가 밝혀졌기 때문에 현재까지 개발 완료된 백신이나 치료제는 없습니다.

Q 확진환자는 어떻게 치료하나요?

A 아직 완치 치료제는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증상에 대한 대증 치료를 실시 중입니다.

Q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은 진단법이 있나요?

A 질병관리본부와 18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간 유전자 검출 검사(Real-time RT-PCR)로 진단이 가능합니다. 2020년 2월 초부터 민간의료기관으로 검사가 확대됐습니다.

Q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은 사람 간에 전염되나요?

A 최근 중국 내 가족 간 감염 사례, 의료진 감염 사례 등 사람 간 전파가 확인됐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의 감염 예방 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Q 의심환자 조치는 무엇인가요?

A 의심환자는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입원하여 진단검사 및 증상 치료를 받습니다. 이에 대한 비용은 정부가 지원합니다.

Q 접촉자 범위는 어떻게 설정하나요?

A 접촉자는 환자의 증상발생기간 중에 항공기, 공항, 의료기관, 일상 생활 등 환자와 접촉한 인원을 대상으로 노출 정도와 보호구 착용 여부에 따라 설정합니다.